

참교육학부모회의 일제고사 대응



지난 7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 바 일제고사가 초6, 중3, 고2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폐해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시민모임)에 적극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지부지회에 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활동을 펼쳤다. 기자회견

(광주, 부산)을 여는가 하면, 거리시위(부산)와 일인시위(거제, 부산) 그리고 교육청 항의방문(부산), 나아가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파행사례를 모아 보도자료를 내기(거제)도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연회와 토론회(광주)를 펼치기도 하였으며 체험학습(광주, 김해, 울산) 까지도 시행하였다.

2010년도 25차 임시총회 공고 25차 임시총회 및 여름연수

- 일 시 2010년도 8월 21일(토) 오후 2시 ~ 22일(일) 오후 1시
- 장 소 대전 계룡산 동학산장 (계룡산 동학사 입구 / 042-825-4303)
- 참가대상 2010년도 대의원, 회원, 가족
- 총회안건 정관개정
- 문 의 본부 사무처 / 02-393-8900

○ 프로그램 ○

☼ 첫째날 (8월 21일, 토요일)

☼ 둘째날 (8월 22일, 일요일)

시간	프로그램/ 내용
14:00~16:00	공동체 놀이
16:00~18:00	특강 변화된 시대에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5차 임시총회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선출 4. 전자 회의록 낭독 및 승인 5. 안건처리 안건1) 정관 개정 6. 회의록 낭독 7. 폐회 선언
21:00~22:00	난상토론 "일제고사 폐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22:00~24:00	어울림 마당
24:00~	취 침

시간	프로그램/ 내용
08:00~9:00	아침식사
09:00~11:00	[전체발제] 진보교육감시대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09:30~11:30	분임 토의 1. 학교혁신사업 속에서 학부모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방안 및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학부모의 역할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학부모 역할 4. 산행
11:30~12:00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총회 평가
12:00~13:00	난상토론 "일제고사 폐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13:00~	어울림 마당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지난 7월 7일(수) 오후 2시, 30여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 서울모임 주최로 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발족식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취지와 경과보고 후 참가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염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우리회 강혜승 남부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7.12 [논평] 교과부와 교총은 합의한 교장 공모제 개선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교과부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하라!

7.13 [성명서] 수학여행 비리 차단은 전자입찰이 능사가 아니다! 교과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다시 세워라!

이달의 주요기사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교육소의 계층 지원 교사모금

04 교육자치
친환경무상급식 약속, 서울에서 성공할까?

05 정책
체벌, 미래를 가로막는 오래된 현실

06 기획특집
여름방학 체험학습

10 언론정보출판
성남지회 청소년 환경동아리

15 사설
체벌논란, 이제 끝내야 한다

1회 도서관 살리기

2회 교장공모제 학교

3회 2010우리교육에 바란다

4회 지역아동센터

5회 새터민학교

6회 꿈꾸는교실

7회 행복한 성적표

8회 공간만들레

9회 교육소외계층 지원 교사모금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사모금

2007~2009년, 전교조는 교사들의 성과금을 모아 이렇게 썼습니다



▲ 비정규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전달



▲ 민주노총 비정규직 장학회에 기탁



▲ 용산유가족에게 투쟁기금과 자녀의 장학금 전달



▲ 인천 침교육 장학금 전달



▲ 충남 태안 기름피해 장학 지원



▲ 충북지부, 하이닉스조합원 자녀 10명에게 1차 전달



누구보다 가까이서 우리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함께 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님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일부 교육 관료, 학교장의 비리와 추문으로 교육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말없이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을 살피며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그들의 인격형성과 진학지도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줄었는데 급식이며 등록금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이들 또한 바로 초·중·고 선생님들입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과 소식을 듣노라면 담임교사로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가 타고 행여 아이의 가슴 속 상처가 커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사모금’ 펼쳐

전교조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지난 2007년부터 1년에 한 번 씩 받는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가운데 일부를 자발적 모금을 통하여 학교와 교실

은 물론 학교 밖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사모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들, 누구보다 지원이 절실한 지역공부방 아이들, 이주노동자 자녀들, 장애인 아학과 농산어촌 아이들,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로서 우리 교사들은 이들을 위해 급식비와 장학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2007년에는 전교조는 물론 전교조 소속이 아닌 선생님들까지 모두 3만 5천여 명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40억여 원의 돈을 모금했습니다. 2008년에는 전교조 본부 차

원에서 모금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도지부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진행하여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역시 1만 3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여 20억여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언론들은 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쇼’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자발적으로 연 인원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교사들이 특정 목적에 사용해달라고 해서 지정기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계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참조, 지정기탁금 제외〉

2007~2008년 전교조 본부 : 659,494,476원

구 분	집 행 액
● 태안기름유출 피해주민 자녀 장학금	201,290,000원
● 라디오방송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장학사업(MBC여성시대)	201,377,204원
● 한국여성재단 공동주관 “교육희망 나누기”	200,098,000원
●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한글교재 만들기	50,000,000원
● 미집행액	6,729,272원

2007~2008년

전교조 각 시 · 도지부 : 2,180,000,000원

지출내역(2008.12.31 현재)

지부	총액	결식학생지원	지역공부방지원	장애인아학지원	농어촌학교지원	비정규직자녀지원	미집행액
강원	62,584,870	9,700,000	10,000,000	3,000,000	8,400,000	22,000,000	9,484,870
경기	342,383,450	54,600,000	77,000,000	9,000,000	13,630,500	139,000,000	49,152,950
경남	183,999,200	40,900,000	13,000,000	7,900,000	69,177,800	51,200,000	1,821,400
경북	193,977,540	38,295,000	34,595,000	11,250,000	20,724,000	84,761,000	4,352,540
광주	108,934,000	25,965,000	21,471,975	5,193,000	5,066,900	22,672,000	28,565,125
대구	75,030,000	18,900,000	26,380,000	1,500,000	7,100,000	20,600,000	550,000
대전	30,160,000	7,300,000	5,800,000	1,450,000	-	15,610,000	0
부산	107,062,000	29,600,000	22,500,000	5,000,000	-	20,000,000	29,962,000
서울	276,698,000	85,300,000	69,979,360	13,129,000	-	98,685,000	9,604,640
울산	54,288,000	13,050,000	10,440,000	2,610,000	2,610,000	25,578,000	0
인천	153,030,000	37,000,000	29,440,000	7,360,000	6,600,000	30,000,000	42,630,000
전남	321,723,100	114,885,650	55,100,000	13,674,000	48,275,132	71,980,000	17,808,318
전북	82,715,540	39,200,000	17,350,000	3,700,000	5,300,000	17,144,000	21,540
제주	41,498,930	16,000,000	7,500,000	2,000,000	6,000,000	8,000,000	1,998,930
충남	87,201,910	30,610,000	15,560,000	3,890,000	10,242,000	27,560,000	-660,090
충북	58,713,460	13,800,000	-	2,647,000	6,165,000	10,100,000	26,001,460
계	2,180,000,000	575,105,650	416,116,335	93,303,000	209,291,332	664,890,000	221,953,773

이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자녀들을 위한 자녀 장학금으로 2억 원을 지출한 것과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재(‘재미있는 한국어’/우리교육)를 만들어 전국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한 것 등이 있습니다.

사용내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국의 16개 전교조 시도지부에서 결식학생 지원, 지역 공부방 지원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곳에 혹은 장학금으로 혹은 급식비로 그리고 시설과 운영 지원비로 모두 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지원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지원과 도움이 절실함에도 모금액이 부족하여 이를 모두 지원하지 못한 사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발적 모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2009년 모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참여 인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낸 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역시 특정목적을 위해 써달라고 지정기탁한 모금액을 제외하고 본부와 지부가 2009년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역시 2007~2008년처럼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과 장학금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등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다만 한 지역과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닌 개발과 이윤추구라는 목표로 결탁한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써, 이로 인한 도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피해임을 확인하고 시국선언 탄압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대회 참여를 통해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모두 2천 8백만 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용산 참사 유가족과 쌍용자동차 해고위기 노동자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2009년

전교조 각 시·도지부 : 521,757,897원

지출내역(2009.12.31 현재)

구분	사회연대기금					
	교육소외계층 지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	지역공부방 지원	장애인 아학 지원	농산어촌지역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지원
강원	11,000,000	5,900,000	2,670,426		2,500,000	
경기			39,900,000			9,500,000
경남	24,845,000					3,158,473
경북	44,035,000	5,100,000	29,857,540	1,000,000	8,692,460	11,000,000
광주		12,100,000	6,800,000	2,000,000	1,000,000	7,000,000
대구						
대전						5,850,000
부산	대안교육 공간마련 22,334,400					
서울			24,200,000	5,000,000		34,000,000
울산			629,146	1,200,000		10,000,000
인천	28,714,110	49,400,000	장학기금조성 2,703,767 / 남북화해협력지원 1,011,183			
전남	2,542,500	23,557,898	7,004,799		3,000,000	16,912,378
전북	8,350,000	8,400,000	4,700,000	1,450,000	550,000	13,700,000
제주	3,500,000					1,400,000
충남						
충북	12,600,000		2,000,000			
본부	40,880,550					
계	198,801,560	104,457,898	120,465,678	10,650,000	15,742,460	112,520,851

● 전교조 본부 : 207,960,690원

- ☞ 상여금 모금액 192,570,650원 중 180,000,000 원을 사회복지공동금회에 정기탁하여 전국지역아동센터(전국지역공부방모임)에 지출할 예정임.
- ☞ 전국교사대회(5.23) 참가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모금한 돈 14,534,010원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함.
- ☞ 시국선언탄압 규탄 전교조 결의대회(7.5)에서 직접 모금한 돈 13,426,680원을 쌍용자동차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함.

물론 아직까지 지출되지 못하여 전교조 본부와 시도 지부가 보관하고 있는 돈은 2010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급식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이 언론의 무관심 속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교사들의 이런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주목 받고 사회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급식실에서, 학교 밖 공부방에서 우리 아이들과 땀 흘리며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노용래(전교조 기획관리실장)

친환경무상급식 약속, 서울에서 성공할까?

친환경무상급식, 현실이 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은 지난 15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도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시민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8만 명이 넘는 교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일부 진보 교육감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일보 7월16일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교총회장이 취임일성으로 무상급식 반대를 들고 나왔다. 더구나 무상급식 반대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단체들과 한나라당에서는 무상급식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넘어섰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매우 초보적이긴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 온 전국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매우 감개무량한 상황이다.

서울, 친환경무상급식 불모지에서 관심지역으로 급부상

전북, 경남,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때 서울은 별로 미동도 없었다. 그나마 일부 친환경급식이 전국에서 꼴찌로 2009년부터 시작되면서 작은 싹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서울(2010년 기준 21조 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었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발의를 성사시켰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은 관심 밖의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한 공정택 전서울시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학교급식법에 명문화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조차 불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



다. 그러다 보니 서울은 위탁급식 1등, 학교급식 비리 1등, 식중독 사고 1등이라는, 학교급식 수준 최하위 지역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개선과 제도 변화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평가가 딱 들어맞는다.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전국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가 정치인들의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백 개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10년의 세월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었다.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친환경무상급식 의제는 정책 중심의 선거를 견인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정치인들이 대거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지역은 광노현 교육감과 대다수 구청장 당선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한결같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제 서울지역은 친환경무상급식 불모지에서 각종 언론들의 관심 집중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후보로 추대되어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된 광노현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정책을 혁신학교, 교육비리 척결 등과 함께 핵심 실천 과제로 삼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초등학교 2천295억여 원, 2012년 초등학교, 중학교 3천790억여 원, 2013년 유·초·중·고교 모두 5천236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여 4년 임기 내에 유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서울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과는 달리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게 소득을 따져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당장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자·가난한 아이들을 따지지 않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한명숙 후보에 맞서 소득하위 30%까지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7월15일자 기사)」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분담이 중요하다. 물론 무상급식 예산은 그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무상급식 시행에 서울시 예산을 분담할 의사가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한강운하 등에 쏟아 붓는 삼철 예산을 우리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사용하라고 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학교급식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무상급식의 성공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시급성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요즘에 먹을거리 혁명이라고 불리는 친환경급식의 확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생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재배된 우리 농산물 식재료를 학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는 희망을, 우리아이들에게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식재료 공급이 주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급식의 정책 시행,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식생활 교육 등이 필수적이다.

학부모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다.

이원영(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체벌, 미래를 가로막는 오래된 현실

조금 있으면 이명박 정권의 집권 전반기를 지나게 된다. 정권이 바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찔하게 느끼게 해준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지방 선거에 힘을 모았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은 교육운동 진영과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취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열망하고 주장했던 수많은 교육 문제들을 책임지고 변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모두가 긴 호흡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벌 금지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 발표에 보수 세력 반발

서울 한 초등학교의 일명 ‘오장풍’ 교사 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이를 계기 삼아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진보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려 준비하고 있었던 조중동이 중심이 되고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까지 합세한 소위 보수(?) 세력이 일제히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 더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 하는 식상함까지 있는 체벌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 논의가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먼저 생겼지만 진보 교육감 시대, 흥내만 내는 정책이 아닌 구체적 현실 변화를 통한 역사적 진보를 이뤄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수 세력의 체벌 찬성 논리에 대한 답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대, 비판 논리를 하나씩 되짚어 보자.

첫 번째 비판 논리는 ‘현실론’이다. 소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개성이 강하고 조금은 버릇이 없는, 때로는 막무가내인 아이들과 전쟁을 벌이듯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벌을 금지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역시 교사이고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겹게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요즘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98년 체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발표했던 교육부가 2002년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벌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현실론이다. 10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론, 체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접근보다는 ‘교사’가 아닌 당신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 뭘 아는냐는 사회에 대한 욕박지름으로 느껴진다면 좀 과도



한 반응일까? 차라리 현실론을 좀 비틀어 오래된 현실이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현재 학교 교육의 혼란함은 무엇 때문일까? 교사, 학생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어지러운 현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뭐가 바뀌어야 할까? 혼란함을 극복하고 학생 교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와 개별 학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자율적 결정’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

“체벌 관련한 논란을 통해 민주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체벌 문제를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선 오래된 현실과 미래를 향한 현실의 생산적 논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비판 논리는 체벌 금지 여부는 각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일관된 원칙인 자율적 결정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다. 그러나 조건과 결부되지 않는 자율적 결정은 사기에 가깝다.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는 수평적 권리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다. 교장, 교감과 교사,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철저히 수직적 위계 관계 속에 있다. 수직적 위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정하는 상황, 결론은 정해져 있고 약자라고 느끼는 집단들에게 자율적 결정은 변하지 않는 현실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자율적 결정은 교육 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

할 문제와 개별 학교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차별적인 ‘자율적 결정’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두발 자유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NO CUT 운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교육부는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두발 관련 규정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바뀐 현실이 있는가? 학교에서 두발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대만에서는 2005년 8월 31일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완전한 두발 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세 번째 비판 논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18조 1항, 시행령 31조 7항을 들어 98년 체벌 금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법 조항의 개정 없이 2002년에는 체벌 허용을 이야기했다. 교육부가 법 해석과 관련한 논쟁의 당사자인 것이다. 또 2002년 9월 국가인권위는 체벌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 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체벌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을 연장시킨 주범이 바로 교육부라는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상위법 위반 운운하는 비판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 밖에도 2~3시간 만에 급조되었다느니 하는 몇 가지 부차적인 비판이 있지만 틀린 사실 관계에 기반한 비판까지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학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체벌 관련한 논란을 통해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고 자기 세력의 결집을 꾀하려는 보수(?) 세력의 의도와 상관없이 민주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체벌 문제를 단순 찬반 논쟁을 넘어선 오래된 현실과 미래를 향한 현실의 생산적 논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을 수십 년 간 붙들어 놓고 있는 후진성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체벌 금지의 당위성에 대해 한 수 가르치는 우월함(?)이 아닌 체벌과 상관없이 학생 교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학교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고 학교생활 규정도 만들고 문화예술 교육도 활성화하고.....

꼬리와 몸통을 구별 못하는 소모적 논쟁, 이제 종지부를 찍자. 아니 이미 체벌 금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표명으로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난 진보 교육감 시대가 행복하다.

김영삼(성동굴로별경영교 교사, 우리회 자문위원)

스마트 공부법 = 다양한 체험학습!

유아기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현실이다. 피해갈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은 어떻게?

다양하게 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암기로 지식을 쌓는 기존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취득한 지식을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의 교육 방안을 하나 뽑는다면 바로 다양한 체험학습일 것이다.

우리 체험학습으로 공부해요~

체험학습은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온 몸으로 축적해 놓고 필요에 따라 꺼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부법이다. 체험학습은 교과서, 문제집, 참고서와 씨름하며 정답을 익히는 주입식 학습에 비하여 실질적 효과 면에서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자연생태, 문화 등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삶의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노동의 소중함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연 속에서 관찰학습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해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적인 핵심인재양성이라고 한다. 수업시간은 줄이고, 체험학습은 대폭 늘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바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11년 초, 중 1학년부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한 번 체험학습을 했다고 모든 걸 다 습득 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체험학습이어야 지적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체험학습의 최고 선생님은 바로 부모다. 놀토나 방학을 이용한 가족체험과 가족 간의 대화야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체험학습 공부법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녀의 교과서를 같이 훑어 본 후 체험학습 장소를 정하면 어떨까? 체험학습 장소를 자녀와 함께 정하고 계획한 후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보자. 체험학습의 놀라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들은 사실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원한다면 사전에 방문할 곳에 관한 이야기와 방문 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란다. 체험학습을 또 하나의 사교육 학원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즐거운 체험학습이 귀찮은 또 하나의 학원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관심과 지속적인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강화도로 역사체험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아이들과 강화도에 가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눌까? 강화도의 유명 특산물이 뭘까? 언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까? 어느 시대에 강화도로 피신했을까? 이런 주입식 질문들은 아이들에게 학습이란 부담만 안겨주기 쉽다.

강화도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찾아볼까? 몇 시간 걸릴까? 어떤 도로를 타고 가야 할까? 왜 이름을 강화도라고 했을까? 강화도에서의 좋은 추억거리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 강화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자. 그것만으로도 50%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강화도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미리 강화도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고 떠나는 심화학습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강화도 갯벌에서 신나게 놀다오는 체험학습도 권하고 싶다. 갯벌 생태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강화도로 현장체험을 한 번 다녀온다고 모든 것을 다 알아 낼 수는 없다. 좋은 기억과 관심만으로도 나중에 맞을 체험학습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체험학습으로 찾아내는 우리 아이 잠재력

체험학습으로 학습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체험학습은 자녀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돋보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 자녀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지 또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뚜렷한 소질과 진로가 결정된 후에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험학습의 장점을 꼽자면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응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체험학습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한 다음,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심의 흔적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끝없는 체험학습의 세계 전래놀이 체험학습을 통한 사회성 기르기

우리는 어릴 적에 동네 오빠 언니들에게 놀이를 전수받았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동네에 나가 같이 놀 언니 오빠는커녕 친구들도 보기 힘들다. 소모임을 통해 우리의 전래놀이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모르는 사이에 사회성과 협동심을 배우게 된다. 다방구, 구슬치기, 사방치기, 까막잡기, 삼팔선, 오징어놀이..... 부모 세대 중에도 이런 놀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놀이는 단순히 재미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놀이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다.

다방구라는 놀이를 보자. 두 팀으로 나뉘어 술래는 상대방팀을 잡으러 다닌다. 잡힌 친구들은 진에 붙어 같은 편이 살려주기를 기다린다. 같은 편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희망을 배울 수 있다. 같은 편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기도 한다.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다. 동화터빙하기, 동화로 연극대본 만들어 공연해보기, 요리만들어 레시피 만들기,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지도만들어보기.....

체험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사회는 개혁과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창조적인 인간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도시화, 기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체험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깨달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일 것이다.

머리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이 가장 먼 길이라고 한다.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실천력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에게서 강한 실천력이 나온다고 한다. 오늘 당장 실천력 높은 부모가 되어보자.



이민애
(성남지회 교육부장)

■ 성남지회 체험학습 사례



■ 초 1~2학년 ‘엄마와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여러 가족이 함께 재료를 다듬으며, 부모님 어릴 적 김장 했던 날의 풍경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해안에 살던 분은 소금물로 배추를 절이는 대신 바닷물에 배추를 담갔다 꺼내 절였다고 한다. 지방마다 지역마다 자연환경에 따라 김장 하는 풍속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배추를 버무리며 김장독을 묻기 위해 땅을 파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땅을 팠는지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며 현재와 과거 생활방식의 차이를 체험할 수도 있다.

무를 1/2, 1/4로 썰며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분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가 하면 함께 넣어야 할 고춧가루와 새우젓의 양으로 비율의 참다운 의미를 배울 수도 있다.

김치의 종류와 김치에 들어 있는 유산균에 대해서는 물론 김치의 변천사 등 많은 학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나눔으로써 부모와의 교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초 3~4학년 ‘숲 체험’을 통한 과학, 생태 수업

동네 하천에 찾아가 수중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을 잡아본다. 물 밖에서 날아다니는 잠자리 유충이 물속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운이 좋으면 플라나리아를 만나 그들의 재생력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도 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수중 생태계의 먹이 관계도 알아보고 분해자

역할을 하는 옆새우의 존재도 알게 된다. 재미있는 물놀이도 하며 생태계를 이해하는 과학수업도 덩으로 할 수 있다. “우리 고장에 이런 하천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런 수업을 해야 할까?”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도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수업이 될 것이다.



■ 초 5~6학년 ‘역사 체험’

역사체험은 활자로 된 책을 통해 역사를 받아들이기보다 그 현장을 답사하고 몇 십 년 몇 백 년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과거를 상상하며 상상의 타임머신을 타볼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된

다. 지금 현재가 역사의 한 순간임을 인지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도 있다. 때론 덥고 힘이 들어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인내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경술국치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Colonial Rule and War Responsibility in East Asia, 1910~1945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고 잊혀져가는 오욕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기억과 성찰 그리고 치유의 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0.8.12 ~ 9.3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1·12옥사

주 최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후 원 동북아역사재단·경향신문사

문 의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www.minjok.or.kr



고양지회

- 1. 7월 청소년 정기봉사활동으로 황토논에서 돌 골라내기 했어요.
- 2. 어린이풍물교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어요.



광주지부

우리회 박부희 상담실장을 초빙해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광양지회

- 1.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자는 거리홍보 중입니다.
- 2. 백운산으로 들꽃기행 다녀왔어요.



양주지회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유지숙 전 서울지부장과 함께 공부했어요.



나주시회

- 1. 지난 7월 24, 25일 여름캠프 '가자 고구려 속으로 풍당' 갔다 왔어요.
- 2. 여름캠프에서 둘째날 아침 검도 배우기.



인천지부

2011년도 인천시 예산편성 공청회에 참석해 7개 요구사항 발표하는 최경애 인천부지부장



영암지회

영암지회는 회의중!



경남지부

지난 7월 7일 일제고사 파행사례 발표, 체험학습 실시, 창원 남해 고성 교육장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지회

강수돌 교수 초청강연회 했습니다.



상주지회

1. 4대강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을 살피러 갔어요.
2. 강의 원형이 잘 보전된 예천의 내성천에서 놀다왔어요.



대구지부

1. 안전한 밥상에서 윤리적 밥상으로 특강 겸 7월 월례회의 가졌어요.
2. 영어캠프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아이들.



부산지부

일제고사반대 일인시위 중인 채승영 지부장.



울산지부

체벌 거리여론조사 겸 참교육학부모회 거리홍보 했어요.



■ 성남지회 청소년 환경동아리

중학생 청소년환경동아리

환경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나와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을 알아보고 실천해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처음 동아리가 생긴 것은 2003년, 초등학교까지 체험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찾던 중에 성남 환경연합과 연계하여 작년까지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교육부장 이민애님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학생 11명 여학생 6명으로 총 17명이 참여하여 매월 첫 주 일요일에 만나서 활동하고 있습

니다.

3월 첫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견학, 5월 봉곡사에서 발우공양 체험, 6월 성남 역사유적지 남한산성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기, 7월엔 시험기간인 관계로 일부 학생만 참석해서 환경관련 영화 '아바존의 눈물'을 보았으며 8월엔 생생녹색체험관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낸 의견으로 벼룩시장, 쓰레기 줍기, 퍼포먼스,

나무심기, 거리 바닥 껌 떼기 등을 활동할 계획입니다.

뜰에 짜인 프로그램을 쫓아 다니는 수동적인 동아리 모임에서 탈피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해 나아가는 동아리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 1년 청소년 환경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환경 지킴이들이 탄생하겠지요.

이용옥(성남지회 사무국장)

일상의 삶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길



4월 10일 청소년 환경동아리의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번에는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센터를 답사했

다. 사람이 쓰고 남긴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처음 간 곳은 성남시 수질복원센터.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물(하수:오수+우수)을 다시 정화시키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소비량이 약 345리터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덕분에 물 부족 국가가 되었고, 2026년에는 기근 국가가 될 거라고 한다. 우리가 아끼지 않고 쓴 물들이 하수 처리장에서 다시 깨끗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센터를 다녀온 후부터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세제를 많이 쓰시나 감시하고 빨래하실 때도 깨끗한 건 좋지만 여러 번 행구는 것은 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 또한 샤워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빨리 끝내려 노력하고 있다. 예전엔 3~4곡의 음악을 들으며

했는데 요즘엔 2~3곡으로 끝내고 있다.

이번 견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설은 최종침전지였다.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 이 시설은 생물반응조에서 처리된 하수가 모이는 곳인데, 여기서는 미생물이 오염물질 덩어리를 가라앉히고, 이를 다시 포기조로 보내 유기물이 산화 분해되도록 한다. 인간이 오염시킨 물을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한심해보였다.

두 번째로 음식물처리장에 들렀다.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가 처음 음식물을 버릴 때 나는 냄새 같지는 않아 그래도 좀 괜찮았다. 먼저 큰 나선형 파이프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기계로 처리하기 힘들 정도의 단단한 물체가 자주 나와 파이프의 날이 부러진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물을 버릴 때 주의해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리한 음식물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퇴비 등으로 재활용 된다고 한다.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사고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인간들

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 다른 생물들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재활용센터에 갔다. 여기서는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작업하는 곳이다. 우리 아파트는 매주 한 번 월요일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스티로폼, 그리고 비닐로 나누는데 나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센터에 가보니 우리가 했던 것이 또 다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았다. 비닐류는 색깔별로 그리고 스티로폼도 종류가 다양해 재작업을 하고 있었다. 폐지는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음료수나 페트병에 찌꺼기가 있으면 압축할 때 다른 깨끗한 것들을 오염시켜 안 좋다고 한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한다면 훨씬 경제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다녀 온 후 우리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오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내가 환경오염 지킴이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생각해 봤다. 세탁기 위치가 물이 오수로 내려 갈 수 있는 장소에 있는지, 물은 최대한 아껴 쓰고, 분리배출은 재활용센터에서 배운 것처럼 하고, 음식물을 남겨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등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지킴이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곽태민(중1)

음식을 음미하지 마라!



참으로 경건한 하루였다. 버스를 타고 굽이 굽이 언덕을 타고 간 곳은 성남 외곽에 있는 절 봉곡사. 절이 참 아담해서 좋았지만, 역사 깊은 건물이 많아서 내심 놀랐다.

간단히 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우공양을 하였다. 역시 절에서 사용하는 발우(그릇)라 그 기운부터 달랐다. 요리조리 발우보따리를

풀고 본격적인 공양을 하였다. 엄숙하고 웬지 체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밥은 맛있었다. 단무지와 콩나물무침, 김치, 두부를 한 그릇에 모아 놓고 먹는 것만 빼곤 별 다른 것도 없었다. 모두들 밥 먹는 시간이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판다.

“음식을 음미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뜨끔했다. 내 인생 최대의 낙이 음식 먹는 것인데……. ‘뭐 나중에 스님될 건 아니니까.’ 하여튼 공양을 하고 나서 단무지로 그릇을 깨끗이 닦아먹는 차례였다. 친구들은 경악했지만, 난 평소에 그 방법을 많이 써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조심조심 발우보따리를 다시 싸는 것으로 내 인생 최초의 발우공양은 끝났다. 봉곡사를 뒤로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났다. ‘정말 스님들은 공양하실 때 음미를 안 하실까?’

성동현(중1)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를 해보니

남한산성 유원지로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현충일이라서 추모행사도 하고 6·25 체험행사도 있어서 사람들로 북적북적. 날씨도 화창해서 그런 북적대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매우 즐거운 아침이었다. 오늘의 목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남한산성 산책로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잎의 광합성 작용 중 기공을 통한 수분의 이동 여부에 관한 실험을 하기로 한 우리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왜일까. 길을 걷다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쓰레기가 담배꽂초. 남한산성 유원지 가운데 우리가 간 곳이 산 쪽이라서 담배나 발화성 물질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나는 굉장히 놀랐다. 음식물 쓰레기, 술병 무더기, 껌 껌질, 사탕 껌질, 땅에 박혀있는 이상한 고무줄까지…….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잠시 쉴 겸 계곡에서 숨을 돌렸다. 계곡물은 초여름 날씨가 무색하도록 차가웠다. 채집통에 올챙이도 잡고, 물장구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 줍기를 마치고 밥을 먹고 헤어졌다.

남한산성에서 쓰레기 줍기를 해보고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 이 생각은 버려자!!! 정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서 청소하려고 해도 한계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쓰레기가 쌓이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다. 나도 한 번씩 귀찮을 때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쓰레기를 치워보니까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고 이것이 꽤나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예진(중2)

Q&A
상담실

초등 3학년, 부진이라며 방학 때 2주간 매일 4시간 수업

Q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고 눈치도 있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아직 언어(단어)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고 시험 칠 때 문제를 대충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성적 부진으로 나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2주일 간 하루 4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학부모동의서를 보냈더라고요. 밤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다 물어볼까? 우리아이가 그렇게 열등한가? 이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일까? 이런 많은 고민 끝에 동의하지 않음에 표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잘한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의 의미도, 개념도 모르는 3학년 아이에게 우등, 열등이라는 등급표를 매기는 자체에 동의 할 수 없고, 성장기의 갈등, 혼란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존감 향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초등 3학년에 '부진아, 열등아' 낙인을 찍어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이라고 자존감을 낮추고 학교성적만으로 아이를 열등생으로 만듭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공부 가 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어른들, 아니 선생님들이 학교에

서 가장 먼저 열등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 끝에 부진아 수업에 동의하지 않았습디만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합니다. 학부모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엄마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정말 학교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된 학부모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아이의 다양한 재능, 성장의 싹도 아직 틔우지 않은 시기에 성적 부진이라고 구분되는 것은 무척 큰 상처가 되었을 듯합니다. 이 일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담임교사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담임교사께 부모님의 교육관을 설명하시고 아직 학습 부진이라고 일컬을 때가 아닌 만큼 상처를 받지 않고 학습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 필요한 듯합니다.

학습부진 학생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등

을 통해 판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과 7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일상적인 학교 생활 평가도 학습부진 진단평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 평가 방식으로 학습부진 학생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판별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성적이 아닌 여러 변인 즉, 교과별 수행평가 및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력, 사고력, 그 외 생활 환경이나 학습 집중력 등을 종합 판별해서 부진학생을 판별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세심한 판별을 할 만큼 교사의 시간과 물리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봅니다. 또한 그런 판별프로그램이 옳은 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5월에는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초·중·고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목표량을 제시했고 학교는 이에 따라 학생 선별을 합니다. 여러 부작용 중 하나가 어머니 말씀처럼 '열등'이라는 낙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교육철학이 뚜렷하시니 그렇게 지도하면서 아이를 지지해 주시면 용기를 갖고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속에서 많은 동기가



부여되고 학습태도와 방법도 터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읽기가 뒷받침 되어야 문제를 이해하고 교사의 지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꾸준히 읽어주면서 책에 흥미를 유도하고 문장을 꼼꼼히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가 훌쩍 지나면 학습량도 많아지고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는 4학년이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학습 방법을 길들여주 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평가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갈수록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평가와 무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수업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임교사께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흙

며칠 전 신문에서 700여 년 전 고려시대 연 씨앗에서 싹을 틔워 분홍색 꽃이 만개한 사진과 기사를 보았다. 그 긴 시간동안 퇴적층에서 씨눈을 지켜낸 씨앗의 생명력에 경외심마저 들었다. 내가 그 기사를 유독 눈여겨 보았던 것은 우리 집 아파트 옆 공터의 연두색 철조망을 이제 막 기어오르려는 호박 줄기들 때문이다.

5년 전 늦가을, 시어머님이 주신 호박속의 잘 영근 호박씨를 말려서 나중에 까먹을 요량으로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 이리 저리 굴러다니던 그 비닐봉투를 부엌 서랍 구석에서 찾았을 때는 이른 봄부터 자란 다른 호박들이 이미 꽃을 피우기 시작하던 올 6월 초였다. 공터 흙에 거의 버리듯이 뿌려놓은 호박씨들은 자갈 섞인 흙속에서도 연두색 떡잎을 보란 듯이 세상 밖으로 내밀었다. 그동안 비닐 봉투 안에서도 씨앗이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흙을 만나 비로소 씨눈을 열어 싹을 틔워낸 것이다. 고려시대의 연 씨앗이 700년의 세월을 기다린 진흙! 나의 호박씨가 5년 동안 비닐 봉투 속에서 만나기를 기다린 흙!

모두 흙이란 환경이 주어지자 싹을 틔워내고 꽃을 피워냈다.

흙 이야기가 나오니 작년 상담원 교육 때, 큰 아름다리나무의 튼튼한 뿌리를 품어주는 흙이 되고 싶었던 내 말이 기억난다. 사실 난 식물이나 화초를 키우는 데는 영 소질이 없다. 우리 집 베란다 한 칸에는 각양각색 빈 화분들이 잘 포개져 있다. 친구가 부자되라고 사주었던 돈나무 화분, 어디에선가 받아 온 허브 화분, 큰맘 먹고 장만했던 산세베리아 화분, 제일 좋아했던 파키라 화분 등. 저 화분들이 모두 비어있었던 것은 화초들의 뿌리가 썩어서였고, 뿌리가 썩게 된 이유는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자주 주어서였다. 중학교 다닐 때였던가? 아버지가 마당에 애지중지 키우시고 계셨던 호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웬일인지 호두가 꼭 대어섯 개밖에 안 열렸다. 비료를 많이 주면 더 많이 열리겠지? 비료를 왕창 주었더니만 바짝 타서 말라죽어 버렸다. 비료를 많이 주면 삼투압작용인가 뭔가 해서 나무가 오히려 말라 죽는다는 것을 난 몰랐다. 사람에게만 과유불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들한테도 너무 많은 물과 너무 많은 영양분은 오히려 독이 된다.

우리의 아이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백 년 된 씨앗도 싹을 틔우게 만드는 흙의 역할은 단지 품어주고 기다리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환경만 조성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여 하늘을 향해 가지들 뻗을 것이다. 혹 우리는 단단한 토층속의 연씨에게, 비닐봉투속의 호박씨에게, 싹을 틔우라, 꽃을 피우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집에도 두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중이다. 이 아이들에게 난 적당한 환경과,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가? 뿌리를 깊게 내릴 시간도 주지 않고,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는 물과 거름을 쏟아 부으며, 어서 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내일은 호박에 거름이나 주려 가야겠다. 적당히…….

김금주(13기 상담원)



4대강사업은 불법이고 졸속입니다

2010년 한국사회는 4대강사업 논란과 생명의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 유례없는 녹색성장과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사업, 꼭 필요하다고 속도를 냅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이 밝혀졌는데도 사업의 공정률이 35%에 이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4대강사업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이며, 이토록 국론이 분열된 이유는 홍보와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4대강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홍수·가뭄·수질 등 물 문제를 해결하며, 문화·관광·레저 환경을 조성하여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은 2011년까지 8억 톤, 2016년까지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6개의 보(사실상 댐)를 설치하고 5.7억㎡의 모래와 자갈을 파서 거대한 '물 창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76% 수준인 4대강 '좋은 물(II 급수, BOD 3mg/L)' 비율을 2012년까지 86%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천 주변의 경작지는 정부가 모두 토지수용 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에 유기농 야채를 공급한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의 농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곳에 산책로, 레저활동공간, 자전거도로, 지역별 특화문화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사업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2011년에 8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과대 포장되었습니다. 2011년까지는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내년에는 130만 명이 1년 동안, 1,040만 명이 1달 반 동안 사용할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식수원은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엉터리로 작성된 것입니다.

둘째, 16개의 보를 만들고, 5.7억㎡의 준설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흡합니다. 보와 준설은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홍수를 막는 방법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 정비가 우선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본류 정비율은 97%를 넘어섰습니다. 본류에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정책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22.2조 원을 투자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불과 6개월의 검토 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단한 속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계절 조사가 기본인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마쳤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습니

다. 물론 이밖에도 4대강사업의 문제는 그 규모와 속도만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은 하천 생명의 죽음으로 이수라장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4대강의 '미친 속도'만큼 한국사회는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강은 강답지 않게 이리 잘리고 저리 쪼개집니다. 생명은 두 동강입니다. 강바닥에서 생명을 잇던 농민들이 통곡합니다. 심지어 스님이 소신(燒身)하고, 노동자가 절명(絶命)합니다. 환경활동가들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기둥에 올라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윤상훈(녹색연합 정책실장)

강을 살리는데 보를 설치한다?

최근 4대강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정보를 가동보로 설치하기 때문에 보 설치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고, 가동보를 최첨단 가동보로 설치하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보는 고정보(固定洑)와 가동보(可動洑)로 구분된다. 고정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보를 말한다(사진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라하여 필요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하고 퇴적물(모래)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하여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 보를 말한다(사진②). 실제로 하천에 설치되는 보

는 고정보를 설치하고 퇴적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일부 구간에 가동보(수문)를 설치하고 있다(사진③). 근래에 들어서는 고정보에 의한 수위 상승 및 퇴적, 수질오염(녹조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구간을 가동보로 바꾸고 용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보들은 철거하거나 자연친화형 보(돌무더기)로 바꾸고 있다(사진④).

「영산강 승촌보는 전체 509m 구간 중 고정보 구간 319.7m 가동보 구간 176m(수문 50m-2개, 30m-2개), 어도12.5m로 설치



사진① 고정보(화순 도곡보)



사진② 가동보(화성 제월보)

하고 있다.」 가동보에 사용되는 수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문을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여는 형식의 수직 인양식 수문과 수문이 넘어지면서 열리는 전도식 수문이 있다. 승촌보는 수문 4개가 모두 수직 인양식 수문이고, 금강보는 3개의 수직 인양식 수문과 2개의 복합형 가동보라고 하는 수직 인양식 수문위에 전도수문을 설치하는 형태의 수문이 설치된다.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하천보(사진3)에 수문을 끌어올리는 기계(권양기)가 있는 형식의 수문이 수직 인양식 수문이



사진② 가동보(화성 제월보)



사진④ 돌무더기

다. 4대강에 설치되는 수문은 규모가 엄청 크겠지만 구조는 같다.

수직 인양식 수문은 끌어올리는 수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여 전기가 필요하고 전동기(모터)를 이용해 작동시킬



일본의 복합식가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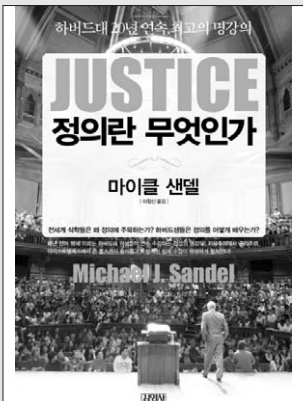
수 있다. 비상시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발전 시스템이 적용되는 최첨단 수문인가 싶지만, 만약에 전동기(모터)가 고장 나면 어떻게 수문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보에 설치되는 수문은 집중호우, 정전, 기계고장 등 비상시 대처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천에 설치되는 가동보는 높이가 1.5m 정도인데 저층수 오염이 문제가 되어 저층수 배출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높이가 5m이상인 보를 설치하면서 공사 시작 후에서야 보 중간중간에 저층수 배출로(직경 800mm)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다.

최근 하천에 이미 설치된 고정보의 수질 오염 문제와 토사 퇴적문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붕괴 위험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가동보로 전환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보 자체가 지나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를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은 자연형 돌무더기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꼭 4대강에는 보 아닌 댐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박정연(나주지회장)

하버드대학 교수의 명강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김영사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 또는 행복이란 단어처럼 사람들이 평소에 매우 자주 사용하지만 뜻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른, 그래서 한마디로 '애매한' 것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서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오히려 '애매한' 것에서 '더욱더 애매한' 한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학 강의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 유추 가능한 모든 입장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 틀을 한 없이 넓혀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편협한 시선을

하버드대학 교수의 강의를 묶어서 만든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흔한 일은 아니다.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독자들을 가질 수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단 말인가? 제묵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가지기는 싫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만들어진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 자체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의견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이 책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그리고 결코 한 의견에 더 중점을 두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유지한다. 나중에는 흥미로웠지만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결론을 내주지 않는 작가에게 섭섭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하고 명쾌한 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보자면 이런 것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가 하나 있다. 당신이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데 당신 앞에 5명의 인부들이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마침 옆에 있는 철로에는 단지 1명의 인부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방향을 바꾼다면 5명 대신 1명만 희생될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보아 철로의 방향을 바꿔 5명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5명의 생명 가치가 한 사람의 그것보다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은 그 기차 운전수가 아니다. 여전히 그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로 달려가고 있지만 당신은 철로가 지나가는 다리 위에 서있고 당신 옆에는 한 뚱뚱한 사람이 서있다. 당신이 5명의 인부를 살리려면 그 기차를 세워야 하지만 당신은 너

무 말라서 기차에 뛰어들어봤자 기차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기차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과연 5명을 구하기 위해 그 뚱뚱한 사람을 철로로 미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인가?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를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 뚱뚱한 사람이 나치 당원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듯 이 책은 날카로운 예들로 독자의 흥미를 활활 타오르게 한다.

이 책은 분명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책은 아니다. 간단명료하지만 생각할 것을 남기는 책이다. 대중 읽는다면 친구들과 심심풀이로 하는 흥미진진한 수수께끼거리를 제공하는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하며 관심을 기울여 읽는다면 깊은 사고력과 넓은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정말 좋은 책이 될 것이다. 특히 토론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책이므로 방학 동안에 모여서 이 책을 읽으며 토론을 한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끝장토론'이 될 것이다.

괜히 하버드의 명강의서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문득 책의 표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열정적으로 듣고 있는 천여 명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 있는 정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김진영(학생)

쉽 터



군말산책 14



최기중(목포지회 교육부장)

최시리

그 날 처갓집에서 장인어른 말씀이 귀를 쫑긋하게 했다. 아내를 '최시리'라고 불렀다. '최시리'란 '최가 부처'란다. 예전에 어머니가 사촌 누나들을 '김실, 박실, 장실' 이렇게 불렀는데 이 '실'이란 말에서 '시리'가 나왔단다. 그때 결혼한 누나들이 사돈댁 식구가 되었기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아내도 '최실'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최시리'라고 부르면 된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천정은 남이고 시댁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장인어른의 말씀.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말씀이 단전을 뜨겁게 한다. 아내를 '최시리'라 부르면서 시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어르신의 명쾌한 명언. 이따금 천정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하며 쌍볼키던 아내도 이제 어찌지 못하겠지. 처갓집에 인색한 남편일랑 무지렁이처럼 대하면서 오명가명 천정만 향하는 아내를 이제 '최시리'라고 부르면 된다.

최기중 시집 《나무 위의 여자》 중에서

-. 군말

결혼 초년시절 처가는 경기도 부천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에도 빙장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살았다. 전주 큰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처갓집에 가야 하는데 교통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가기 싫은 핑계거리로 오해한다. 한번쯤은 명절 전날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역귀성처럼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애탐은 번번이 내 설득에 포기되기 일쑤였다. 명색이 장남인데 명절날 자리를 비우는 게 온당한 거냐고 반문하면 허만 '메베메' 내들린다.

아내는 내가 처갓집에 너무 못한다고 여긴다. 남편쟁이가 처갓집에 몰인정하고 야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번번이 변명하기 급급하다. 처가가 나주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다녀온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처가에 정이 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핑계 댈다면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우리 결혼 전에 세상을 뜨셔서 처가에 가도 의무감만 앞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도 1년에 한번 빙장님 생신 때는 이 일저일 제쳐놓고 올라갔다. 그 때 빙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였는데 아내를 '최시리'라고 한 것이다. 아내에게 앞으로는 '최시리'로 살아야 한다며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갑자기 단전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불거질 정도였다. 물론 '출가지외인'이라는 부장적 관습을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처가에 못했던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감격했던 것 같다. 옛날부터 사위를 백년손님으로 부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213호부터 최기중 회원의 군말산책을 실었다. 최기중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 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한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갈 말'이기도 하다. 이 쉽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보자.

인터넷 운동에서 배워야 한다

7월 2일, 미국 올드 도미니언 대학 영문과에서 저널리즘 글쓰기와 언론학을 가르치는 이진순 교수(46)의 발표회가 서울대에서 있었다. 온라인 사회운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인터넷 액티비즘(Activism)은 그의 박사 학위 연구 주제다. 소셜가 이론을 씨를 비롯해 한국의 보수우파가 인터넷에서 벌여지는 누리꾼들의 활동을 '극소수의 악의적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대중행동'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바깥의 눈'으로 한국의 인터넷 사회운동을 해석하려는 시도였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인터넷 액티비즘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흐름을 포괄한다. 첫째는 인터넷을 기존 사회운동의 효과적인 자원동원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둘째는 인터넷 그 자체를 투쟁의 장으로 삼아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투쟁활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패러디나 사진합성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 주류적 정치문화에 대항하는 대안적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특히 앞의 두 가지 시각이 전통적 연구자들의 관점이라면 마지막 흐름의 행동은 유희이자 반항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다. 특별한 리더가 없고, 특별히 돈과 시간이 들지 않고, 재미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엄숙하고 진지한 사회운동과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 액티비즘의 주체는 조직이나 권위 있는 단



체에 기반을 두지 않고 탈 중심적이고 수평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민의식을 자각하게 되는 인터넷 사용자그룹으로서의 네티즌(누리꾼)이다. 런던대학 채드윅(Andrew Chadwick) 교수의 혼성동원형 사회운동 모델이 그 출발점이다. 교수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이끄는 조직으로서 정당과 이익집단, 사회운동단체를 꼽고, 이들의 운동방식이 점차 서로 영향을 미치며 비슷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 중 상당히 탈 중심적이고 비위계적이며 좀 더 풀뿌리에 가까운 조직형태와 활동양식을 지닌 사회운동단체가 새로운 운동방식을 개발하고, 이것을 정당이나 이익집단도 따라 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2003년 하워드 선거운동과 2008년 오바마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오프라인-온라인, 정당-사회단체의 혼성적 모델이 발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모델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네티즌 문화는 1990년대 피시통신 시

절부터 시작되어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여기서부터 네티즌 그룹과 전통적 사회운동단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운동형식에서 촛불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깃발과 행진이나, 조직형태에서 수평적이고 부정형적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비교적 위계를 갖춘 조직이나 하는 차이가 드러났다. 인적 구성 면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네티즌 그룹은 2002년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네티즌이 주도한 사회운동의 혁신적인 형태나 가치를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나 정당정치가 받아들이지 못한 지체에서 오는 누적된 불만의 반영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채드윅 교수의 모델과 다르며, 채드윅 모델에는 없는 제4의 그룹, 즉 네티즌 그룹이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국의 사회운동은 네티즌에 비해 혁신이라는 면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 그들의 참신한 가치와 운동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 인터넷에서는 매 순간 권력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므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범(출판기획자, blog.daum.net/thistiger)

인터넷미디어의 확산과 그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지난 7월 7일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확산과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2005년 1월 인터넷신문이 신문법이란 제도적 틀 속으로 포함된 이후, 2009년 3월 17일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 수는 1,399개로 급증했다. 여기에 잡히지 않는 웹진과 소식지, 종이신문과 잡지의 온라인 서비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 불리는 파워블로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미디어활동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미디어는 폭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는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내용적·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취재, 보도, 논평과 함께 뉴스 유통에 있어서도 큰 전환을 가져왔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정보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정치 엘리트나 권력 혹은 미디어 게이트키퍼에 의해 관리된 정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때로 상당부분을 그들 자신이 새롭게 정의하고 구성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직접·참여 민주주의를 가속화 시키는 기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에서의 변화도 극적이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웹으로 확장되기도 했지만, 인터넷미디어가 뉴미디어 빅뱅을 주도하며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대중사회의 미디어 체계를 재구성하며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웹의 미디어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미디어 확산이 긍정적 효과만 불러온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무한복제와 익명성으로 인한 정보인권 문제가 그 하나다. 2005년 개통된

사건, 2008년 탤런트 최진실 사건, 2009년 연예인 장자연 자살과 관련된 리스트... 인터넷 괴담과 악플 등 인터넷미디어로 인한 인권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인터넷생태의 특징인 포털로의 정보 집중과 검색기능의 고도화는 인터넷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주홍글씨'로 불릴 정도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을 우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면서 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제는 확보하였다.

네트워크 시민참여가 의미 있는 참여로 발전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민주공간으로 기능하려면 그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참여는 단순한 추종에 지나지 않으며, 윤리의식과 정치·사회·시민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광범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보았을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사설

체벌 논란, 이제 끝내야 한다

또다시 케케묵은 체벌 논란이 불거졌다. 예나 지금이나 체벌에 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은 이렇게 시작된다. 과도한 폭력적 체벌이 동영상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상에 나타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보며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잠시 분개하다가 이런 폭력적 체벌은 용인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쉬운 통제 수단인 체벌은 학생인권을 침해 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적 체벌은 사라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회는 창립 초기부터 줄기차게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체벌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체벌은 일시적인 통제 효과는 있지만 체벌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수동적이 되고, 폭력에 무감각 해지고 폭력을 답습하게 된다. 또한 ‘사랑의 매’와 ‘교육적 체벌’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비교육적으로 행해지는 체벌이 결국 교육적 효과도 없을뿐더러 종종 일부 교사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란 말이 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정해놓고 지도하기 위한 명분으로 구시대적인 체벌을 껴안고 놓지 않아야 하는가. ‘교육적’ 체벌 논란, 이제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즉각 반론이 제기된다. ‘학교 현실을 너무나 모른다.’ ‘삼십십 명이 넘는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줄 아느냐.’ ‘눈을 치켜뜨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버릇없는 학생’ ‘무단결석, 흡연, 음주, 교칙위반’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몇몇 학생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데 대책이 있느냐’며 항변한다. 심지어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체벌금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라며 으박지르기까지 한다. 참 답답하다. 교육운동을 하는 우리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빌미로 언제까지 찬반 논란을 벌이며 허송세월 할 것인가. 체벌금지

선언은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보다는 체벌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머리를 맞대자.

현재 열악한 교육현실 속에서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 교육청을 중심으로 체벌전면금지를 선언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학교문화는 한 단계 성숙해 질 것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 한다면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이 약해져 결과적으로 교육포기’로 이어진다면 적극 반대하는 교원단체도 있지만, 그동안 체벌 없이 학생지도를 모범적으로 한 학교의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오히려 이런 학교일수록 교사의 권위는 살아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공동으로 합의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보다 이러한 가치를 배우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다.

☞ 10면에서 이어짐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원이 되어야

겨울방학 동안 인도로 여행을 갔을 때 ‘마이소르동물원’에 잠시 들를 기회가 있었다. 아침 시간이었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다. 들어서자마자 넓은 우리에 함께 있는 4마리의 기린이 보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새들이 보였다. 앵무새, 닭, 공작, 꿩, 매, 독수리, 올빼미, 노랑부리, 하얀 공작, 홍학, 두루미, 큰부리새……. 동물원 전체에 야자수가 빼곡하고 풀도 무성하여 웬만한 생태공원 수준을 능가했다. 유인원관에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비비, 원숭이, 긴팔원숭이 등 다양한 유인원들이 있었다. 고릴라들은 나무를 타고, 침팬지는 나무에 올라 다른 나무로 건너뛰는데, 비비들은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유인원들이 자신의 습성대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넓은 터 덕분이다. 정글에서만 산다는 ‘뿔’도 볼 수 있었다. 돼지 같은데 코가 좀 긴, 풀만 뜯어먹는 모습을 보니 아주 운운해보였다. 한 마리밖에 없지만 우리 반 교실의 6배 정도 되는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소르동물원은 자연환경이 아주 잘 조성되어있는 동물원이다. 행복한 동물들을 보면서 언젠가 보았던 황운 감독의 ‘작별’ 영화가 생각났다. 우리나라 동물원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별’에서는 ‘크레인’이라는 호랑이가

주인공이다. 크레인은 백내장에 걸렸고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도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코끼리, 오랑우탄, 고릴라, 원숭이, 너구리, 호랑이… 하나같이 우울한 표정과 함께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다. 호랑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랑우탄과 고릴라는 구석에 붙어서 축 늘어져 있고, 코끼리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코로 열려고 노력하기까지 했다. 앤서니 브라운이 쓰고 그린 『동물원』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표정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모습들도 하나같이 슬픈 모습이다. 영화에 나오는 동물원 자원봉사자는 내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동물들이)물론 밖에서 사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어느 한 곳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원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죠. 최소한 멸종은 막을 수 있잖아요.”

돌봐 주려면 잘 돌봐 주든가. 우리에게 가둬 놓고 사람들 구경거리나 되게 하는 게 돌봐 주는 건가? 어느 동물이 병에 걸린 상태로 살면 병에 걸린 종이 계속 태어나서 결국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동물원에서는 결국 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서 황운 감독에게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동물원은 동물들에게 감옥과 같은 곳이다.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다. 인도 동물원을 구경하면서 우리나라 동물원 모습이 겹쳐 정말 안타까웠다. 인도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동물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것이다.

류호산(중1)

※ 사정상 이번 호에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을 씁니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편집위원 강인수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장은숙 전은자
주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 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박수미 강인수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강혜승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864-3958	권한행 김부정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969	부지회장 조속희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6-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70-7761-9890	부지회장 어중석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충남지부	041)576-6677	지부장 신선정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0-5420-3979	지회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박정연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9473-6876	지회장 정미숙
	광양지회 010-5622-5333	지회장 이희정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경북지부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구미지회 011-506-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0-2276-2338	지회장 김미경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지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김해지회 010-3359-9579	지회장 임창현
	거창지회 055)942-8272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준비위	안양 010-2215-2536	위원장 이정심

지문위원회 ● 이규환(지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전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굴로법경영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감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틀심리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꿈꾸는교실 관장)

좋은 노래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바보처럼 살고 싶은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노래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이오덕, 권정생, 임길택 선생님은 삶과 글쓰기가 하나였던 분들입니다.

세 분 선생님 시에는 아이들 마음속에 들끓는 온갖 감정부터 우리네 삶까지 두루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가 백창우 아저씨를 만나 맑은 노래로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이 노랫소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 이오덕 할아버지의 노래상자 **노래처럼 살고 싶어**
- 권정생 할아버지의 노래상자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 임길택 아저씨의 노래상자 **나무 꼭대기 까치네 집**

노래상자마다 백창우 아저씨가 직접 그린 손악보 책과 CD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전화 031-955-3535 | 누리집 www.boribook.com | 블로그 boribook.tistory.com 
















6호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민족민주열사·의인을 만나다 역사와 삶 독서대회

- 응모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일반부
- 모집내용** 일제식민지 시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민족민주 열사·의인들의 인물도서(추천도서 이외에도 응모가능)
- 모집분야** 감상문, 평론, 독서신문, 만화, 독서화 등 형식과 내용은 제한없음
- 보내는 방법** 인터넷접수 : bookyolsa@hanmail.net (파일로 첨부)
우편접수 : 121-80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233 4층 역사와 삶 독서대회 앞
- 응모마감** 2010년 10월 30일까지(당일 소인 유효)
- 심사결과 발표** 2010년 11월 19일(예정),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알림
- 시상내역** 초·중·고등부, 일반부 등 부문별로 선정 상금(도서상품권, 부상)과 상장 수여
- 시상식** 2010년 11월 27일(예정)



- * 인터넷이나 우편접수시 원고 끝에 성명, 학교(학년, 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핸드폰)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 추천도서 목록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추천도서 중 후원된 일부(한정) 책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리오니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book.yolsa.org>
- * 문의 : 6호 역사와 삶 독서대회 02-716-7565

주관 |  추모연대  전국교육과정연구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민족문화추진회  한겨레교육

후원 |  경향신문  교육희망  나라말  민족문화추진회  새마을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생보

학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생활 지침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기획하고,
십 년 넘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선배 학부모가 시시콜콜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학교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에 내야 할 돈과 내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학교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을
기본지식을 비롯해 지혜롭고 건강한 학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학교, 아는 만큼 보인다! 무턱대고 불안해 말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내 아이를 옆집 아이 바라보듯, 그렇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순진한 다짐을 했던 엄마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터였다.
옆집 아이는 점점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잔소리장이가 되어갔고, 아이랑은 점점 멀어지고... 아, 어쩔 줄단 말인가!
한숨만 쉬지 말고 길을 찾아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지 않은가?
_김미화(방송인)

학부모는 학교를 겁내고, 학교는 또 학부모들을 겁낸다.
두려움은 관계를 망친다. 겁내지 않으려면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선입견,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교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_박재동(만화가)

참교육학부모회 기획 * 박이선 · 황수경 지음 * 12,000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민들레**

한 권 값 6,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5,000원 | 정기구독 신청 | 02-322-1603 | mindle98@empal.com | www.mindle.org

